

전남광주시, '800조 반도체' 내년 첫삽·4년 내 완공 목표

반도체 전략위원회 구성해
용수·전력·정주시설·행정지원
공장 4기 완공 시 인력 2만여명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를 현실화 하기 위해 '상반기 첫 삽·4년 내 완공'을 목표로 역량을 총 동원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해 전남광주(서남권) 지역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반도체 생산(팹)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중심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공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전남광주특별시는 '상반기 첫 삽·4년 내 완공'을 목표로 용수·전력·정주시설·행정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반도체 메모리' 설계(램리스)부터 생산·후공정·실증·인재양성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 할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공장 후보지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청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고용 창출 효과는 팹 공장 1기당 최소 1500명의 인력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돼 4기가 모두 완성될 경우 6000여명 이상이며 협력사, 배후단지 조성·물류·서비스업 까지 포함하면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년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복합소광물 3종을 구체화 했던 것처럼 '속도'를 전면에 걸

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복합소광물 3종 중 '더현대광주'는 202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신세계 백화점 확장' 어등산 관광단지에서 '그랜드스타필드 광주'가 추진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반도체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문가·행정·시민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들도 반도체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입지가 확정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약속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시행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산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의 국공유지 무상 임대 등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면 전남광주특별시도 용수관·송변전소 설치 계획, 오페수 처리·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등을 신속하게 처리 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투자 계획이 발표됐지만 공장이 들어설 장소와 설립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며 "반도체는 통합한 전남광주의 미래인 만큼 공장 1기라도 먼저 4년 내 지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중농사회복지자치구 대표단 방문

경북도는 자매도시인 중국 농사회복지자치구 양위징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일행이 지난 3일 도를 방문해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환담을 갖고 양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04년 우호 교류 체결 이후 이어 온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2021년 자매결연 이후 더욱 강화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올해 자매결연 5주년을 계기로 경제와 문화, 관광, 청소년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국립창원대

산업체 8곳과 세라믹 인력 양성

국립창원대학교가 극한환경용 세라믹 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주요 산업체 8곳과 손잡았다.

국립창원대 극한환경첨단소재인력양성센터는 산업통상부가 지원하는 '첨단 고내구성 세라믹소재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두산에너지, 한국내화, 원진월드와이드, 진성정밀금속, 우주용사공업, 위드엔텍, 이엔코아, 코웰 등과 산학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학 공동 연구 활성화, 산업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군산시

'3배체 굴' 신규 품종으로 육성

전북 군산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배체 굴'을 신규 양식 품종으로 적극 육성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육도면 장자도 해역에 신품종 시범양식 어장을 조성하고 3배체 굴 치패 3만 마리를 입식했다. 이번에 입식한 3배체 굴은 일반 굴과 달리 번식능력이 없어 산란에 쓰이는 에너지를 오히려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일반 굴보다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크기가 커 상품성이 뛰어나다. 특히 여름철 산란기에도 품질 저하가 적어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채취와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군산(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구미시-자화전자, 5000억 투자 유치

광학계 구동·제어 생산공장 신설
2029년까지 400명 신규 일자리

구미시가 자화전자(주)와 5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첨단 전자부품 산업 투자 확대에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자화전자(주), 경북도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이 자화전자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터 분야 기업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프리미엄 모델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구미국가1산업단지에 2500억원을 투자해 8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5년에도 2500억원 추가 투자와 200여 명 신규 채용을 추진했다. 이번 투자까지 포함하면 구미 투자 규모는 약 1조원, 고용은 14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구미(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왼쪽부터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찬용 자화전자 대표이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이 자화전자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구미국가1산업단지에 2500억원을 투자해 8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5년에도 2500억원 추가 투자와 200여 명 신규 채용을 추진했다. 이번 투자까지 포함하면 구미 투자 규모는 약 1조원, 고용은 14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구미(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회사는 2021년 구미국가1산업단지에 2500억원을 투자해 8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5년에도 2500억원 추가 투자와 200여 명 신규 채용을 추진했다. 이번 투자까지 포함하면 구미 투자 규모는 약 1조원, 고용은 14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구미(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포항시, 수소특화단지 투자·지원 정보 제공

공식홈페이지 운영

포항시가 수소특화단지 투자환경과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내외 수소기업 유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 부터 '포항 수소특화단지 공식 홈페이지(h2pohang.kr)'를 열고 투자 검토부터 입주까지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유치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수소특화단지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산업 인프라, 입주 안내, 투자 인센티브, 홍보센터 등의 정보를 담았다. 입주 가능 업종과 산업용지

현황, 단지 배치도, 온라인 투자상담 기능도 제공해 기업의 투자 절차 편의성을 높였다.

포항시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투자자는 최대 50%, 설비투자자는 최대 25%까지 지원한다. 수소특화단지 입주 수소전문기업에는 2%를 추가 지원해 투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으며, 24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산업용지와 수소소프이노베이션센터 등을 기반으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지원한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사천시, 이순신 사천해전 승전 기념식

오는 8일 남양동 모충공원서 열려

사천시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남양동 모충공원 내 성웅 이순신 공덕 기념비 앞에서 '충무공 이순신 사천해전 승(사천)전 43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충무공 이순신 사천해전 승전 기념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천문화원과 남양동조작단체협의회, 지역사회봉사남양사랑이 후원한다. 지역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충무공의 넋을 기리는 고유제 봉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천해전과 거북선 최초 출전, 모충공원 충무공 공덕 기념비 등을 소개하는 사료 전시회도 함께 마련된다.

사천해전은 1592년 음력 5월 29일 충무공 이순신이 사천 앞바다에서 왜군을 크게 격파한 전투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포함한 전선 23척을 이끌고 사천 선장에



충무공은 전투 중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지휘를 이어가 승리를 이끌었고, 선조는 정2품 정헌대부의 벼슬을 하사했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 직전인 같은 해 음력 4월 12일 완성된 거북선이 처음 실전에 나선 해전이라는 점에서 군사사적 의미가 크다. 사천해전의 승리는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후 한산도대첩으로 이어지는 조선 수군 연승의 기반이 됐다.

정박한 왜선 13척을 유인해 전멸시켰다. 거북선이 전투에서 적 함대 한 가운데로 돌진하며 총통을 발사해 왜선을 불태운 것이 이 해전의 핵심이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장마에 '태종대 수국축제' 일정 조정

부산시, 오는 9일~12일로 변경

부산의 대표 여름꽃 축제인 제16회 태종대 수국문화축제가 장마로 일정을 조정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달 4~5일과 11~12일 주말 나흘간 열 예정이었던 축제를 기상 여건을 고려해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평일을 포함한 연속 일정으로 바뀌었으며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축제는 태종대유원지 내 태종사 수국군락지 일원에서 열린다. 태종사의 수국

군락은 주지스님이 40여 년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모종을 수집해 가꾸은 것으로, 현재 30여 종 5000여 그루 규모로 조성돼 있다.

태종대 수국문화축제는 코로나19와 극심한 가뭄으로 수국의 상당수가 고사하면서 5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제15회로 6년 만에 재개됐고, 올해 2년 연속 개최된다.

부산시설공단과 영도구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관광공사와 태종사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공연마당 ▲공유마당 ▲체험마당 ▲기억마당 등 4개 테마로 구성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하반기 전기차 3331대 보급

부산시는 시민들의 친환경차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8일부터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 총 3331대의 전기차를 추가 보급한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2790대, 전기화물차 471대, 전기 승합차 54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 16대다. 이 가운데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1000대는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우선 지원 물량으로 배정했다. /부산=이도식 기자